

번역을 통한 근대 지성의 유통과 젠더 담론

-『여원』을 중심으로-

장미영*

〈차례〉

1. 머리말
2. 번역소설과 이상적 젠더 기획
3. 번역수기에 의한 코스모폴리타니즘적 정체성 추구
4. 동화와 위인전기를 통한 젠더 질서의 상징화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월간 여성잡지 『여원』에 실린 번역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시·공간을 대상으로 수행된 ‘번역’이 그 이질성과 차이를 봉합하며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수용되는 소통의 역학을 젠더적 관점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원』에 수록된 번역문학은 크게 소설, 수기, 위인전기, 동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등 유럽 국적의 작가와 과테말라,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출신 작가,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적 작가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 번역문학은 17C 중국의 청나라 때 작품으로부터 『여원』이 발행되던 1950, 60, 70년대 당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친 다채로운 국적만큼이나 광범위한 시대에 걸쳐 있다. 이처럼 『여원』의 번역문학은 매우 넓은 시·공간에 걸쳐 있어 그 사이에서 국가 간 정보의 이동과 변화, 혼종이 활발하게

* 전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원』이 발행되는 1950년대~70년대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전후의 재건 활동이 필요불가결 했던 시기였다. 재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욕망은 세계를 향한 다양한 정보 입수에 대한 욕망을 부추겼다.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더 이상 ‘역할 모델’이나 ‘삶의 정향’이 되지 못하는 와중에, 『여원』이 기획하고 실천했던 ‘번역’은 전통에서 근대로, 토착적인 것에서 외래적인 것으로의 변화가 생산되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를 불러 일으켰다.

번역이란 널리 알려진 대로, ‘타자의 언어, 행동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맥락’에 맞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번역은 원작(the original)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행위지만, 정작 옮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원작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다. 따라서 번역 발신 텍스트의 이국성과 이질성은 번역을 통해 이러한 문제적 국면을 넘어 상호 교통과 교류를 견인해낼 수 있는 새로운 소통 모델의 개발로 나아감으로써 해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원』에 개재된 번역은 원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역사적 가능성을 찾아 해방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의 개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상당 부분, 기존의 사회질서와 의미질서에 현대적인 외피를 입혀 공고히 함으로서 잔여태로 존재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여원』 발간 초기에는 개체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삶에 주목하는 듯 했으나 점차 미혼 또는 비혼 여성과 결혼한 여성을 구분 지으면서 특히 결혼한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라는 상징적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더 많이 발산하고 있다. 이로써 여성은 스스로 아름답게 살고 다듬거나 쾌락을 향유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남성이나 가정, 육아를 위해서 지원되고 마모되어야 하는 기능적인 존재로, 여전히 탈신체화되고 상징화되는 길을 가는 것이 보다 더 긍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원』의 이러한 보수성은 역으로 ‘현명한 아내’, ‘희생의 어머니’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에 길들여진 대다수의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여지껏 자신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었던 전근대적인 심리적 보호막을 여전히 지켜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줌으로써 외상적 박탈 없이 낯선 이국성과 편안히 조우할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도 했다.

핵심어: 『여원』, 번역, 탈신체화, 상징화, 여성 지성, 코스모폴리타니즘, 심리적 보호막

1. 머리말

이 연구는 월간 여성잡지 『여원』에 실린 번역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시공간을 대상으로 수행된 ‘번역’이 그 이질성과 차이를 봉합하며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수용되는 소통의 역학을 젠더적 관점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원』에 수록된 번역은 크게 소설, 수기, 위인전기, 동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등 유럽 국적의 작가와 과테말라,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출신 작가,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적 작가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 번역은 17C 중국의 청나라 때 작품으로부터 『여원』이 발행되던 1950, 60, 70년대 당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친 다채로운 국적 만큼이나 광범위한 시대에 걸쳐 있다. 『여원』에 수록된 번역은 대개 한 호에 한두 편 정도이지만 가끔은 네다섯 편을 넘어설 때도 있었다. 이처럼 『여원』에 수록된 번역은 시대뿐만 아니라 국가 간 번역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넓은 시공간에 걸쳐 있어 그 사이에서 정보의 이동과 변화, 혼종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 본고는 『여원』이 도시 공간의 여성 교양 또는 근대 지성의 구체적 장으로서 가지는 역동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여원』은 1955년 10월, 창간호에서 “여성들의 지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어 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 · 제공코자 하는 데에 그 미의(微意)가 있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여성

독자를 주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원』은 『신여성』(1923년 9월~1934년 4월, 통권 38호, 개벽사 발행), 『신가정』(1933년 1월~1936년 9월, 통권 45호, 동아일보사 발행), 『여성』(1936년 4월~1940년 12월, 통권 57호, 조선일보사 발행) 등의 뒤를 이어 여성 독자를 겨냥한 본격적 상업지로 출발했다. 창간 초기에는 『여원』이, 발행인 김익달, 주간 김명엽으로 학원사에서 간행되었다. 창간 이듬해인 1956년 6월에는 주간이자 학원사 부사장이었던 김명엽이 독립하여 여원사를 창립한 이후 잡지명을 바꾸지 않았기에, 그대로 『여원』이라는 이름이 계승된 채 속간되었다. 처음 국판 180면 내외로 출발했던 『여원』은 1967년에 이르러 4·6 배판 200면 내외의 증보가 이루어질 정도로 성장했다. 이후 『여원』은 『여성동아』(『신가정』을 이어 속간, 1967년 11월~2012년 12월 현재, 동아일보사 발행), 『주부생활』(1965년 4월~2012년 12월 현재, 학원사), 『여성중앙』(1970년 1월~2012년 12월, 중앙일보사) 등과의 판매 경쟁으로 인해 경영난에 빠져 1970년 4월, 통권 176호로 종간을 맞을 때까지 즐기치게 번역을 수록했다. 번역자는 박태진, 이한, 이진섭, 박인환, 오석천, 양태준, 독규남, 심연섭, 이영호, 박태민, 김한영, 장남준, 이규태, 이세열, 박환덕, 오기방, 권희철, 장왕록, 안동림, 유경환, 김태읍, 김세영, 민희식, 염무웅, 임명방, 조갑동, 김창수, 조용국, 유영, 박재삼 등 남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원』은 잡지의 대상 독자층이 인구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초에 3만부가 팔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잡지 중 판매부수 제2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당시의 유력 중앙 일간지 <동아일보> 1962년 10월 31일자 “참고 서적이 으뜸”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특별히 성별에 따라 독자를 구분하지 않았던 일반 지식인 대상 『사상계』가 약 5만부의 판매부수를 기록하며 잡지류 중 제1위의 자리를 차지했고, 제2위 『여원』에 이어 3위는 영어학습지인 『시사영어』, 4위는 월간 대중잡지였던 『아리랑』, 5위는 월간 문예지인 『현대문학』으로 드러났다.

『여원』의 인기는 1954년부터 도서관 주도로 시행된 ‘독서 주간’ 행사와 1957년부터 문교부와 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주체하게 된 계몽적 독서 운동의 시행으로 인해 독자들의 책 구매 욕구가 증가하는 현상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¹⁾ 이러한 계몽적 독서 운동에 힘입어, 『여원』은 전적으로 독자들의 구매에 의존하는 본격적인 상업지이자 대중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을 붙잡기 쉬운 선정적인 읽을거리 대신 사회적으로 용인 되면서도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수준 있는 ‘양서(良書)’의 품위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로써 『여원』은 대중잡지이면서도 고학력의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의 여성 독자를 위한 교양서적이자 일종의 여성 필독서로 간주되기도 했다.

본고는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했던 『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 ‘여성’의 정치·사회·문화적 약진(躍進)에 대한 발전적 모색을 추구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사회에 수입된 외부의 젠더 문화가, 전후(戰後) 재건과 함께 근대 국민국가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사회의 성장 지향적 기획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2. 번역소설과 이상적 젠더 기획

『여원』에 가장 빈번히 나타나면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번역은 소설이다. 『여원』은 1955년 10월 창간호부터 1970년 4월 중간호에 이르기까지 외국 소설을 줄기차게 번역·소개했다. 주로 특정 작가의 특정 단편 소설이 번역되었는데, 때로는 개별 작품 대신 ‘올해의 노벨상 수상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개관하는 형태나 특정 작가를 소개하는 형태로 대신하기도 했다.

1)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국어교육연구』 17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6, 335~338면.

번역된 소설 작품은 이미 세계 문학공간의 차원에서 다루어진 작품의 평판에 따라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명작 그림 이야기

- ① 루이 에몽(프랑스) 원작, 이봉구(李鳳九) 역, 1955년 10월.²⁾
- ② 퍼얼 · 벅(미국) 원작, 박인환(朴寅煥) 초역(抄譯), 「자랑스러운 마음」, 1956년 2월.

2) 세계단편소설 콩쿨 제1위 당선 작품(『헤랄드 · 트리뷴』지 주최)

- ① 노라 · 버-크(영국) 원작, 이진섭(李眞燮) 역, 「형(兄.) 님(Brother)」, 1956년 1월.

3) 본지 독점 전재(全載) F. 싸강 제3작 소설

- ① F. 싸강(프랑스) 원작, 역자 미상, 「달이 가고 해가 가면」, 1957년 12월.
- ② F. 싸강(프랑스) 원작, 홍순민(洪淳旻) 역, 「한 달 후에 일 년 후에」, 1957년 12월.

4) 불란서(佛蘭西) 대장편(大長篇)

- ① 안누마리 · 세린코(오스트리아, 안네마리 셸린코) 원작, 심연섭(沈鍊燮) 역, 「나포레옹의 첫사랑- 데지레(Desiree)의 일기(日記)」, 1958년 2월.

5) 추리소설(推理小說)

- ① 마이크 · 부렐 원작, 이영호(李英鎬) 역, 「붉은 복수(復讐)」, 1958

2) 『여원』, 1955년 10월호 원문을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목차만 확인했을 뿐, 루이 에몽의 어떤 작품인지는 알 수 없었다.

년 9월.

- ② 하-바아트·해리스 원작, 박태민(朴泰民)역, 「리디아의 무덤」, 1958년 9월.

6) 해외여류작가작품선(海外女流作家作品選)

- ① A·슈닛츠러 원작, 장남준(張南駿)역, 「감상(感傷)의 사나이」, 1958년 12월.
- ② 윌리엄·싸로얀, 김한영(金漢泳)역, 「유전(流轉)-원명(原名)『열차(列車)』」, 1959년 2월.
- ③ 반인목(潘人木) 원작, 권희철(權熙哲)역, 「옥(玉연)이 되어 부서 지리」, 1963년 8월.
- ④ 펠리스 로버어츠 원작, 안동림(安東林)역, 「영웅(英雄)」, 1961년 12월.
- ⑤ 펠·S벽 원작, 장왕록(張旺錄)역, 「큰 파도(波濤)」, 1963년 12월.
- ⑥ 카이슨·백컬러즈 원작, 안동림(安東林)역, 「나무·바위·구름」, 1963년 8월.
- ⑦ 세도우찌 하루미(瀬戸内晴美), 정인영(鄭麟永)역, 「이 여름 다 가고」, 1963년 8월.

7)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 전후(戰後) 명작 다이제스트

- ① 그레이엄·그린 원작, 역자 미상, 「파-티는 끝났건만」, 1959년 7월.

8) 해외단편소설

- ① 헤르만·헤세 원작, 박환덕(朴煥德)역, 「오이겐·지이겔」, 1959년 9월.
- ② 잔·스태포드 원작, 오기방(吳基芳)역, 「러브 스토리」, 1959년 9월.

9) 자유중국명작단편(自由中國名作短篇)

- ① 사빙영(謝冰瑩) 원작, 권희철(權熙哲) 역, 「언니」, 1960년 3월.
- ② 기군(琦君) 원작, 권희철(權熙哲) 역, 「화채」, 1964년 9월.
- ③ 오승란(吳崇蘭) 원작, 권희철(權熙哲) 역, 「구슬 뺨」, 1964년 11월.
- ④ 임해음(林海音) 원작, 권희철(權熙哲) 역, 「일기책」, 1964년 12월.

10) 세계의 명작 다이제스트

- ① 아나톨 · 프랑스 원작, 역자 미상, 「다이스」, 1960년 11월.
- ② 졸쥬 · 상드 원작, 역자 미상, 「마(魔)의 늪」, 1960년 12월.

11) 해외여류단편소설

(1) 해외여류단편소설 · 일본 편

- ① 세도우찌 하루미(瀬戸内晴美), 박재삼(朴在森) 역, 「딸의 환영(幻影)」, 1963년 8월.

(2) 해외여류단편소설 · 영국 편

- ① 마르셀 에메 원작, 민희식(閔熹植) 역, 「난쟁이」, 1969년 1월.
- ② 메아리 러빈 원작, 유영(柳玲) 역, 「가룩한 마음씨」, 1969년 11월.

(3) 독일대표여류작가(獨逸代表女流作家)의 단편소설(短篇小說)

- ① 루이제 린자 원작, 염무웅(廉武雄) 역, 「빨간 고양이」, 1969년 3월.

(4) 이태리의 대표적 명상단편(冥想短篇)

- ① 애레나 보노 원작, 임명방(林明芳) 역, 「마지막 한 마디 말이라도」, 1969년 3월.

(5) 스페인의 대표적 중편소설(中篇小說)

- ① 까르멘 라휘렛 원작, 장선영(張鮮影) 역, 「피아노 이야기」, 1969년 7월.

(6) 포르투갈의 근대 단편소설

- ① 일스로사 원작, 조갑동(趙甲東) 역, 「미스 수제트와 나」, 1969년 8월.

(7) 브라질 여류작가(女流作家)의 단편소설(短篇小說)

① 라셀 데 깨이로스 원작, 김창수(金昌洙) 역, 『가뭄』, 1969년 9월.

(8) 칠레 여류작가의 단편소설

① 마리아 루이사 봄발 원작, 조용국(趙鏞國) 역, 『나무』, 1969년 10월.

12) 다이제스트 세계의 명작

① 67년도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 미겔 안헬 아스투리아스 원작, 안동림(安東林) 역, 『대통령 각하』, 1968년 1월.

13) 문제작 다이제스트

① 프랑스 편 마르셀 에메 원작, 안동림(安東林) 역편(譯編), 『사비즈'들』, 1968년 3월.

14) 5분간 미스테리

① 글로리아 픽스 원작, 김태일(金泰逸) 역, 『고양이 사탄』, 1968년 5월.

15) 해외신작(海外新作) 소개

① 스잔·손타그 원작, 김세영(金世永) 역, 『인조인간(人造人間)』, 1968년 11월.

16) 납량추리소설특선(納涼推理小說特選)

① 찰즈 디킨즈 원작, 역자 미상, 『선로간수(線路看守)』, 1969년 8월.

② 윌리엄 텔 원작, 역자 미상, 『십삼층(十三層)』, 1969년 8월.

③ 글로우리아 빅스 원작, 역자 미상, 『불경기(不景氣)』, 1968년 5월.

④ 로버트 세크리 원작, 역자 미상, 『고양이가 싫어』, 1969년 8월.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여원』은 번역 소설 앞에 ‘세계’, ‘해외’라는 명칭

을 붙임으로써 외국의 낯선 문학을 소개한다는 프레임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콩쿨 당선작’, ‘여류 작가 작품’, ‘전후(戰後) 명작’, ‘명상 단편 소설’, ‘근대 단편 소설’, ‘대표적 중편 소설’, ‘추리 소설’, ‘신작 소설’, ‘대장편소설’ 등의 시대 구분, 장르 구분, 길이 구분, 작가 구분을 의식하게 하는 관형어는 『여원』의 번역 소설 기획자가 ‘세계’ 또는 ‘해외’ 문학의 범주와 정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징후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획자들은 번역 소설을 읽게 될 새로운 성격의 독자를 비교적 확실하게 예측·설정하고 있었고 그들의 지적 욕구까지도 정확하게 포착해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원』은 소비자, 즉 독자의 욕구 파악이 제대로 되었기에 그러한 욕구에 걸맞은 기획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여원』의 판매 부수를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 소설에서 『여원』은 ‘세계’ 또는 ‘해외’라는 지리적 언명 외에도, ‘명작’이라거나 ‘문제작’ 또는 ‘~나라 대표’, ‘대표작’ 등의 관념적 수식어를 내세우면서 해외의 작품을 선별한 후, 짧게는 1회, 길게는 7~8회 정도로 같은 테마를 이끌어가는 기획력을 구체적인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해외 문학에 대한 깊은 안목과 풍부한 식견을 갖추었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기획은 번역 작품 전반을 꿰뚫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계통에 맞게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과 같은 인상을 남긴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범주화 된 관념적 수식어 하에 『여원』이 구체적으로 선택한 번역 대상 소설은, 해외에서 높이 평가 받거나 인기 있는 여성 소설가의 작품이거나 여성 주인공을 다룬 이야기들이다. 『여원』이 번역 대상으로 삼았던 작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주로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서 인정하고 칭송하는 작가의 것이거나 비교적 소통과 교류가 용이한 중국과 일본 작가의 것으로 국한된다. 이후 번역 대상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이들 작가들이 소속된 국가에 대한 지식 여부는 당대에 교양의 수준, 즉 교양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척도였고 교양인의 실력을 측정하는 준거이기도 했다.

『여원』은 특별히 ‘여류 단편’이나 ‘여류 작가’를 내세운 작품들을 두드러지게 특화하는 편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원』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굳히려는 태도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여원』은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프랑스의 ‘포올 베르레에느’, 영국의 ‘앙드레 모로와’, ‘조나단 스위프트’, ‘찰스 디킨스’, 독일의 ‘헤르만 헤세’, 러시아의 ‘톨스토이’, 덴마크의 ‘안데르센’,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등 이미 문명(文名)이 높은 남성 작가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여원』에 수록된 이들 남성 작가의 작품들은 이들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것도 있지만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단편 소설을 실음으로써 굳이 대표작에 연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짐작컨대, 제한된 지면을 의식해서 지면의 할당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원』은 번역소설을 실을 때, 원작의 작가와 수록 작품에 대한 세계문학공간의 평가를 짧게 소개하면서 간단하지만 독서 지침이 될 만한 가이드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여원』 발행 초기인 1956년에는 미국의 소설가 펄벅 여사의 단편소설 『자랑스러운 마음』처럼 한 여성이 ‘여류’ 조각가로서 성공하는 삶을 다룬 작품, 즉 일반 여성들에게 다분히 귀감이 될 만한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근대적 여주인공을 다룬 작품을 수록하는가 하면, 또 미국의 여류소설가 노라 버크의 『형님』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희생적 주인공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1957년부터 1959년까지는 싸강의 『달이 가고 해가 가면』이나 『한 달 후에 일 년 후에』, 안누마리 세린코의 『나폴레옹의 첫사랑』, 하-바이트 해리스의 『리디아의 무덤』, 잔 스테포드의 『러브 스토리』 등이 번역·수록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대개 연인들의 열정이나, 삼각관계, 불륜 등 남녀 간의 연애와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여성이 자신을 아내나 어머니로서보다는 성적 욕망을 가진 한 개체로서의 독립적 여성을 지향하는 근대적 젠더 의식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줄거리는 사회 질서를 거스르고 그에 저항하는 적극적 대항 담론의 성격을

떠기보다는 가해자 남성, 희생자 여성의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0년 3월에는 ‘구식사회의 희생자’가 된 여주인공을 다룬 자유중국 의 여류소설가 사빙형의 『언니』가 번역·수록되었다. 사빙형의 작품은 근대적 젠더 의식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지만, 당대 한국 사회의 통념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은 아니다.

나는 언니가 시집에서 겪고 있는 고통스런 생활……형부조차 한상에서 밥을 안 먹고, 계집종 식모까지도 멸시하는 까닭에 언니는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야 겨우 찌꺼기를 먹는……내가 한 열흘 동안 본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노여움으로 눈물이 그칠 줄 몰랐다.

“아이구 저런! 불쌍한지구. 어찌면 한번도 나한테 말을 안했담. 그리고서 삼 년 동안이나 참고 지내다니. 그런데 왜 그렇게 네 형을 구박하는 줄 너는 모르겠니?”

“처음엔 언니 혼수가 너무 초라했던 까닭인가 봐요. 그집 딸이 시집갈 때에는 굉장했대요. 다른건 몰라도 비단 금침이 스무채나 되고, 장롱 세간 그릇들은 기술자를 상해(上海) 한구(漢口)에 까지 보내서 사온 거래요. 시골서 보는 것처럼 거칠고 보기 싫은 것이 아닌……. 우린 언니 혼수로 그릇을 서른여섯 벌 이부자리를 열여덟 채 보낸 것만 가지고도 너무 많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집에선 거지 딸의 혼수로 밖에 안보고 아니꼬와 했다니.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런 망할 집에다가 시집보냈우?”

“너희 아버지하고 그집 시아버지가 서울로 과거보러 갔을 때 서로 배안의 걸 가지고 정혼했던 것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재산만 알고 사람을 무시하는 안달뱅이 세도집인 줄 누가 알았겠니? 아이참! 그저 제 명이 박한 탓이

겠지.”³⁾

위에 인용된 작품인 『언니』는 가부장제로부터 비롯되는 성별 불평등과 떠느리 노릇, 아내 노릇, 어머니 노릇에만 갇혀 평생을 가족이라는 경계 안에서 비참하게 복종의 삶을 살았던 봉건적 여성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야하는 동시에 구시대적 젠더 담론을 변화시켜야한다는 저항성 짙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1955년부터 1960년에 걸쳐 『여원』에 수록된 번역 소설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는 젠더 위계를 무너뜨려야 ‘가련한 여성’, ‘당하는 여성’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역설적으로 전달한다.

그런데 1961년 4월호에 실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로부터 1961년 12월호의 『영웅』, 1962년 6월호의 『어떤 한국의 여병사』, 1963년 2월호의 『큰 파도』, 1968년 1월호의 『대통령 각하』에 이르는 작품들은 남·여를 가리지 않고 영웅적 행위나 의사(pseudo)-영웅 행위에 주목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대통령 각하』는 과테말라의 작가인 아스투리아스(Miguel Angel Asturias) 작품으로, 20세기 초 20년 동안 과테말라를 통치했던 독재자 마누엘 에스트라다 카브레라를 강력하게 비난한 소설이다. ‘다이제스트 세계의 명작’으로 소개된 『대통령 각하』는 67년도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으로,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삼았지만 국민을 노예상태에 방치해 둔 채 정권장악을 위해서는 어떠한 악랄한 수단방법도 서슴지 않는 악덕 정상배들을 신랄하고도 리얼하게 부각시켜 출간되자마자 대번에 16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고 소개되고 있다.

『대통령 각하』의 주요 장면 중 하나는 카르바할 변호사의 부인이, 남편이 갇힌 감옥 벽에 귀를 갖다 대고 서서 ‘그렇게 서 있으면 남편을 총살 시키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총

3) 사빙형 저, 권희철 역, 『언니』, 『여원』, 1960년 3월호, 359~360면.

알을 발사해서 그와 같이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손에 손톱이 있고, 입에 이빨이 있고, 혀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부인의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염원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카르바할 변호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해인 1968년 11월에는 스잔·손타그 원작, 김세영(金世永) 역, 『인조인간(人造人間)』이 수록되었는데, 이 작품은 아무리 각박한 현대사회라도 진정한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생활, 참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기계인간조차도 인간인 고로 감정이 있고 따라서 정열과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1969년 3월에 수록된 루이제 린자 원작, 엄무웅(廉武雄) 역, 『빨간 고양이』는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독일에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과 살아가는 13세의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은 어느 날 느닷없이 집에 들어온 삐쩍 마른 새끼 고양이가 가족의 먹을 것을 나눠 가지는 것에 분노하여 고양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 몰래 고양이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여원』은 이 작품을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부딪치는 여러 갈등과 곤경을 통해서 일관된 삶의 의미, 즉 모랄을 추구하면서 전후적 현실을 강력하게 환기시키는 동시에 삶에의 치열한 긍정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같은 호인 1969년 3월, 애레나 보노 원작, 임명방(林明芳) 역, 『마지막 한 마디 말이라도』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한 중년 인물의 고독한 죽음을 그림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의 소외감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1969년 7월에 수록된 까르멘 라휘렛 원작, 장선영(張鮮影) 역, 『피아노 이야기』는 작품에 나타나는 여주인공을 통해 여자의 지상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극히 소박한 전통적 도덕관을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또, 1969년 9월에 수록된 라셀 데 게이로스 원작, 김창수(金昌洙) 역, 『가뭄』은 ‘어려운 자연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으로 버티어 보려는 인간의

몸부림을 잘 묘사해 준 작품으로 남녀의 애정행각이나 연인들의 포옹장면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어디까지나 사회생활의 밑바닥을 파헤쳐 주면서도 여성의 지혜로서만 주위 모을 수 있는 정담을 독자에게 들려준다.’고 소개된다.

1969년 10월에 수록된 마리아 루이사 봄발 원작, 조용국(趙鏞國) 역, 『나무』는 주인공 ‘보리하다가 자기의 비극적인 과거를 성실하게 다시 한 번 걸어보게 되는데, 이는 나무가 쓰러졌을 때 느낀 적나라함을 주인공이 독자에게 말해 주려는 바로 적나라함의 것이다.’라 하여 독서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이 ‘적나라함’이라고 부가되어 있다.

1969년 11월에 수록된 메아리 러빈 원작, 유영(柳玲) 역, 『가득한 마음씨』는 ‘유창한 문장과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한 애뜻한 순정탐구로써 진하고 비단결같이 고운 맘씨의 심층구조를 파헤쳐 가면서도 지루하지가 않고 사건 진전의 템포도 능란히 구사해 놓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같은 호인 1969년 11월, 세도우찌 하루미(瀬戸内晴美) 원작, 박재삼(朴在森) 역, 『딸의 환영(幻影)』은 ‘자전적 요소의 작품(作風)으로 여자가 겪는 사랑의 아픔과 후회가 중후한 필치에 의해 추구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원제가 『핑』으로, “어미 핑은 들판이 타면 자기 몸을 태우더라도 새끼를 살리고, 두루미는 추운 밤에 그 날개로 새끼를 따뜻하게 한다”는 일본 속담이 있는데, 어머니의 애정, 즉 모성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에 정리해 놓은 번역 소설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자기 개발 또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다룰 때조차도, 여성의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희생’이나 인고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특히 1969년 이후의 번역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중 가족을 위해 ‘절제’하거나 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인물은 강한 긍정의 대상으로 소개된다.

이처럼 의미에 치중한 번역은 인간의 내밀한 욕망과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한 문학 본연의 예술미보다 작중 인물로부터 냉철한 이성에 기초한 이타

적 지성을 추출하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번역의 자국화(domesticating)를 도모하는 번역 방식이다. 번역은 크게 외국화와 자국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화(foreignizing)는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옮길 때, A, 즉 출발어에 가깝게 번역함으로써 독자를 저자에게 데려가는 형태이고, 자국화(domesticating)는 B, 즉 도착어에 더 친숙하게 번역함으로써 저자를 독자에게 데려가는 형태이다.

『여원』이 발행되던 전후(戰後)의 한국 사회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명 선진국으로 인정된 국가들을 모델로 한 체제 개선과 근대화가 지상 목표였다. 그런 만큼 번역 작업 또한 그 시작은 모방 지향적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소설은 소위 ‘위험한 여성’으로 호명될 만큼 아방가르드적인 성향을 가진 아프레게르(après-guerre) 이야기나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불릴만한 이야기들을 배제함으로써 이국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에 대한 공포나 증오로부터 발생하는 내적 저항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세계의 문학공간에서 우월한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난한 작품을 선택함으로써 다분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여원』은 번역소설에서 억압에 대한 저항의식과 지혜로움, 고운 맘씨, 사랑, 모랄, 따뜻한 가정의 필요성 등의 주제를 추출하여 특별히 작품 소개나 작가 소개의 형태를 통해서 더욱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번역소설에서 중점을 둔 작품의 주제들은 일반적으로, 냉철한 이성에 기반을 둔 이상적인 젠더 역할의 결과로 귀결되는 스토리 라인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할 때 가능한 것이다.

『여원』의 번역은 당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안에서 경시받기 쉬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길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즉 당시 『여원』을 만들어내는 지식인들은 전란 이후 땅에 떨어진 국가의 위신과 혼란에 빠진 도덕의식을 외국 작품에 기대어 이성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여원』이 발행되던 1950~1970년대는 번역 소설의 주요 대상이 되었

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특히 서구에서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여성의 지위에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여원』의 번역소설에는 여전히 여성이 ‘희생되는 여성’ 내지 ‘희생하는 여성’이거나 ‘인내하는 여성’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는 번역소설이 당대에 논의가 분분했던 페미니즘(feminism), 즉 인간 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여권확장론이나 남녀동권론의 진보적인 사상을 수입하여 전파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긍정하고 그러한 여성관을 현대에도 계승해야 한다는 보수적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온존시키는데 필요한 기존의 문화적·사회적 개념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여원』 소재 번역소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번역의 실천은 여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전근대적인 구태에서 벗어나면서도 기존의 가족 질서, 사회 질서와 공모하면서 효과적인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상적인 방법의 모색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원』이 번역소설을 통해 추구한 것은 서구식의 도시화되고 근대적인 개체적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희생을 요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지혜롭게 결합시켜 불행하지 않은 원만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상적 가능성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3. 번역 수기에 의한 코스모폴리타니즘적 정체성 추구

『여원』에 수록된 수기는 4편 정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청(淸)·심복(沈復) 원작, 오석천(吳昔泉) 역, 중국 고전(中國 古典) 『부생육기(浮生六記)』, 1956년 4월~1956년 12월.
- ② 아그네스·데이비스·김(金) 원작, 양태준(梁泰俊) 역, 『나는 코리안

의 아내(I Married a Korean)], 1957년 7월~1957년 11월.

③ 펠 S·벅 원작, 이세열(李世烈) 역, 『자라지 않는 아이』, 1959년 8월~9월.

④ 사빙영(謝冰瑩) 작, 권희철(權熙哲) 역, 『어떤 한국의 여병사(女兵士)』, 1962년 6월.

번역 수기는 1956년부터 1957년, 1959년, 1962년에 간헐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작품 수도 많지 않다.

위에 언급한 수기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밝히자면, 『부생육기(浮生六記)』는 중국 청대 건륭(乾隆), 가경(嘉慶) 연간에 활약했던 수필가이자 화가였던 문인 심복(沈復)이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으로, 주인공인 부생(浮生)에 대한 여섯 가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규방기악(閨房記樂)’으로 심복(沈復)이 그의 아내 운(芸)과의 삶과 함께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그리고 있다. 운(芸)은 아침마다 남편에게 향기로운 연꽃차를 내주었다. 당시 연꽃차는 값비싼 고급차로, 말단 관리였던 운(芸)의 남편 심복(沈復)의 수입으로는 꾸밀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芸)은 지혜를 발휘하여 저너날 수련의 꽃송이가 꽃심을 오므릴 때 비단 주머니 속에 차를 넣고 꽃심에 놓았다가 차를 품은 수련이 밤새 별빛과 달빛 이슬을 맞으며 차의 향을 촉촉한 수련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침 일찍 수련의 꽃봉오리가 입을 벌릴 때 그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 차로 차를 달여 아침마다 남편에게 독특하고 은은한 차를 내주었다. 이 같은 멋을 남편인 심복(沈復)은 아내 운(芸)이 떠난 후에 알게 되어 회한의 눈물로 아내와의 추억을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대만의 유명한 중국 고전 번역가였던 임어당은 『생활의 발견』에서, 『부생육기(浮生六記)』의 여주인공 ‘운(芸)’을 시대를 초월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라 찬탄했다. 임어당의 이 글로 인하여 『부생육기(浮生六記)』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나는 코리안의 아내』는 미국 출신 데이비스 아그네스 김¹⁾이 쓴 장편 수기로 원제는 ‘I Married a Korean’이다. 이 작품은 ‘한국 남자와 결혼한 미국 여성의 장편 수기’라는 소개와 함께 『여원』의 <장편수기>란에 총 10회에 걸쳐 연재된 글이다. ‘인지가 발달한 나라 미국 출신 데이비스는 한국인 유학생 데이비드·김(김주항(金周恒))과 교제 끝에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올린 후 남편의 나라인 한국의 원시적 생활에 많은 고난을 겪어 가면서 오로지 그의 사랑과 지성, 인내와 노력, 그리고 신앙으로써 견뎌냈다. 이들 부부는 원시적인 한국의 생활 방식 개선을 위해 농촌생활의 개량과 계몽에 힘썼고 병들어 신음하는 한국인들을 돌보는 한편 아저귀(아마(亞麻))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는 등 한국의 미개한 생활문화를 근대적인 문화생활로 바꾸어 놓으려고 혼신을 다했다’는 이야기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펠벅이 정신지체를 가진 그녀의 딸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소개되고 있다. 펠벅은 딸 캐록 벅의 탄생으로부터 그 딸이 정신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의 방향을 포함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지만 딸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행복감에 대해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을 위해 쓰인 이야기로 장애아에게도 삶의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 주며, 부모, 특히 엄마가 그러한 자녀의 행복을 찾아주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한국의 여병사(女兵士)』는 중국의 유명 여류소설가 사빙영(謝冰瑩)이 중국에서 만난 한국 여자 유학생 이양(李穰)을 소개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사빙영은, 이양이 딸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한 부모 때문에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다는 것과 남한에서 용감무쌍한 혁명투사로 전쟁에 종군(從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면서, 중국의 적마(赤魔) 크레프린의 주구 모택동 때를 불살라 버려야 한다는 뜻을 다진다. 이 작품은 다른 수기가 여러 회에 걸쳐 연재된 것과 달리 1회 분량 체험기로 내용이 빈약하고 짧

아, 다른 수기에 비해 중요성이 덜하다.

이상의 번역수기 중 『나는 코리안의 아내』와 『부생육기(浮生六記)』는 각각 10회 또는 7회로 나누어 연재된 장편 수기로, 잡지사 측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작품으로 보인다. 두 편의 번역수기 모두, 아주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여인의 모습과 아내로서의 활약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이러한 번역 수기는 봉건적인 삶을 영위했던 옛날부터 자율적인 개체적 삶을 희구하는 당대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동양의 중국에서건 서양의 미국에서건 문화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의무와 역할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이고 동일한 것이라는 인식을 유도한다. 이는 ‘현모양처’라는 한국식 젠더 개념이 전 지구적 동질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동하면서 여성의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은 국가나 민족을 넘어서는 돌봄 역할, 즉 정서적 역할과 여성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생육기(浮生六記)』가 젠더 역할을 ‘일하는 남성, 돌보는 여성’으로 구분하고 여성의 활동 영역을 집안의 가족으로만 한정하여 기술했다면, 『자라지 않는 아이』나 『나는 코리안의 아내』는 여성의 돌봄 역할을 가족 밖의 공공의 영역에까지 확장함으로써 근대적 시티즌십을 느끼게 한다. 시티즌십(citizenship)은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에 걸맞은 바람직한 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시티즌십은 공익 달성을 위해 사익 추구를 절제하고 갈등관계에 있던 집단과도 협력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특히 『자라지 않는 아이』는 어머니로서의 여성 역할을 시티즌십(citizenship)으로부터 더 나아가 여성의 코스모폴리터니즘적 역할 가능성까지 내보이는 실사례로 제시된다. 펄벅의 『자라지 않는 아이』는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둔 엄마 이야기를 담은 최초의 장애아 부모의 수기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대지』의 작가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펄벅은 자신의 사적인 아픔을 수기 형태를 통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당대의 사회가 정신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부모나 사회가 장애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자신의 소견을 널리 알림으로써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인으로서도 장애아에 대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파하고 있다.

『여원』은 3쪽 4 정도의 상당한 지면을 따로 할애하여 「자라지 않는 아이」에 대한 ‘역자(譯者)의 말’을 비중 있게 수록하고 있다. ‘역자(譯者)의 말’에 따르면, ‘역자는 1955년 5월에 처음으로 펄벅 여사를 그의 댁으로 찾아가 직접 만났고 그녀의 집에 3일간 묵으면서 그녀로부터 「자라지 않는 아이」의 주인공인 장애인 딸 외에도 아들 삼형제와 딸 셋을 입양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쓰고 있다. 더구나 ‘입양한 여섯 아이들은 출신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와 인종차별을 초월한 펄벅이 최근에는 동서양 사이에 다리를 놓고서 ‘환영의 집’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역자가 목격한 바, ‘펄벅의 이웃에는 아시아계의 아이들이 그들 양부모 밑에서 살고 있고 온 종일 펄벅 여사 댁에 드나드는데, 이에 펄벅 여사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손수 그 여러 식구들의 식사바라지를 하는가하면 집 주위에 동양에서 이식한 많은 꽃들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의 상담까지 친절히 응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에 역자는 ‘원숙하고 위대한 인간 펄벅이 말없이 적서주는 무한히 흐뭇한 만족에 취했었고 그 이상 될 더 바랄 것도 없을 상 싶었다고 극찬하면서, 「자라지 않는 아이」가 ‘너무나도 피맺힌 것인 탓에 이 얘기를 남에게 알리는 것이 여사에게 죄스러운 일 같이만 여겨진다’라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⁴⁾

이처럼 ‘역자(譯者)의 말’에서 드러나는 펄벅의 코스모폴리터니즘적 정체성은 한국 여성을 위한 이상적 삶의 본보기로서 제시되고 있다. ‘세계주의’ 또는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라고 번역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터니즘적(cosmopolitanism) 세계관은 한 국가나 한 민족 또는 한 지방

4) 펄벅 저, 이세열 역, 「자라지 않는 아이」, 『여원』, 1959년 8월호, 124~127면.

에 대한 편협된 애정이나 종족적인 편견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개인을 단위로 한 세계사회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이념이다. 『여원』은 위에서 언급한 펄벅의 번역 수기를 통해 여성의 돌봄 역할을, 편협된 인종적 우월의식을 타파하고 철학적 바탕 위에서 한 개인을 전체 세계의 시민으로 보는 세계시민주의와 유사한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여원』에 수록된 번역 수기는, 동서양의 작품을 막론하고,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투쟁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민족주의적 논리 대신, 인류 전체로 확장될 수 있고 확장되어야 하는 보편성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번역 수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통된 이성을 갖고 있으며 한 개인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 개체로서만이 아니라 전체 세계의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중국인의 구별도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나 청나라 사람 명나라 사람이라는 시대적 차이도 없다는 식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깬 글로벌한 젠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번역 수기에서 ‘여성’이라는 기표는 남녀 성별을 구별하는 생물학적 차원이거나 스스로를 주체화시키고자 욕망하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실존적 차원이 아니라 신의 섭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우주적 존재의 이상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진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 이념을 발산하는 번역 수기는 결과적으로 여성을 해방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성, 특히 모성을 국제적 내지 우주적 넓이를 가진 초월적 존재로 신화화하는 인식적 오류에 갇히게 만든다.

4. 동화와 위인전기를 통한 젠더 질서의 상징화

『여원』에 실린 번역동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엄마가 아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 ① 톨스토이 원작, 역자 미상, 「속이 빈 북」, 1960년 6월.
- ② 스위프트 원작, 역자 미상, 「걸리버 여행기: 소인국 편, 대인국 편」, 1960년 10월~1960년 11월.
- ③ 찰스·디켄즈 원작, 역자 미상, 「크리스마스 캐롤」, 1960년 12월.
- ④ 셀반테스 원작, 최영림(崔榮林) 화(畵), 「동·키호테」, 1961년 4월.
- ⑤ 안텔젠 원작, 최영림(崔榮林) 화(畵), 「장미꽃 꼬마사람」, 1961년 7월.
- ⑥ 솔로·구우브 원작, 최영림(崔榮林) 그림, 「무더운 여름밤의 일곱 가지 이야기: 약한 어린이, 설탕 과자, 오해는 이렇게 해서, 자갈의 모험, 두 개의 열쇠, 길과 불빛, 날개」, 1961년 12월.

2) 최신외국동화

- ① 모린 둔 원작, 유경환 역, 「기린과 목도리」, 1968년 1월.
- ② 앤 램프 원작, 유경환 역, 정준용 그림, 「염소의 소동」, 1968년 2월.

번역동화는 작품 수도 적고 내용이 길지 않아 지면도 많이 할애되지 않았다. 동화에서 특기할 점은, 번역물을 수록하는 타이틀부터 ‘엄마가 아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 하여, ‘교양 있는 여성’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읽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아이들에게 어른이 책을 읽어주는 독서문화는 그리스 문화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전형적인 서양문화의 하나다. 『여원』은 이러한 서양문화를 차용하여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를 마치 여성, 특히 어머니의 의무인 양 소개함으로써 기존의 현모양처 개념을 확장하는 계몽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자녀의 교육과 육이는 주로 여성들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 서양문화에서 차용한 ‘아이에게 책 읽

어주기가 자녀 교육과 육아의 일환으로 간주되면서 ‘책 읽어주기’도 중요한 어머니 역할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원』이 발간되던 1950, 60, 70년대에 비해 남녀 양성평등의식이 현격하게 높아진 2000년 이후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호서대에서 실시한 ‘가정에서의 책 읽어주기’ 조사에 따르면,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는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어 있어 아버지들의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에 대한 참여가 희박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참여에 대한 인식도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서양의 경우에는 보통 저녁 잠자리 들기 전,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서양의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는 어머니만의 의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원』에서는 ‘엄마가 아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 하여 가정에서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를 여성의 역할로 고착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번역전기는 총 2편으로, 앙드레·모로아 원작, 이한(李漢) 역, 『두 여성과 괴테의 운명』(1956년 1월)과 자넷트·이-튼 원작, 편집부 역, 『수줍은 ‘에리노어’-The Story of Eleanor Roosevelt』(1958년 12월~1959년 7월)가 그것이다. 『두 여성과 괴테의 운명』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일생을 특별히 여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쓴 위인전기이고, 『수줍은 ‘에리노어’-The Story of Eleanor Roosevelt』는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이었던 제32대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의 전기이다.

괴테의 전기는 여성이 남성에게 창조력을 샘솟게 하는 원동력이자 남성의 인도자요 동시에 정신과 영혼의 가장 숭고한 노력의 구심점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의 전기 또한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존 권력의 조력자요 동반자로서 구성하고 그 범주의 경

5) 이문정, “가정에서의 책 읽어주기 및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 인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2008, 102~103면.

계를 공고히 하는 계몽적이고 규율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5. 맺음말

『여원』이 발행되는 1950년대~70년대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전후의 재건 활동이 필요불가결 했던 시기였다. 재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은 세계를 향한 다양한 정보 입수에 대한 욕망을 부추겼다.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더 이상 ‘역할 모델’이나 ‘삶의 정향’이 되지 못하는 와중에, 『여원』이 기획하고 실천했던 ‘번역’은 전통에서 근대로, 토착적인 것에서 외래적인 것으로의 변화가 생산되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를 불러 일으켰다.

번역이란 널리 알려진 대로, ‘타자의 언어, 행동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맥락’에 맞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번역은 원작(the original)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행위지만, 정작 옮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원작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번역 발신 텍스트의 이국성과 이질성은 번역을 통해 이러한 문제적 국면을 넘어 상호 교통과 교류를 견인해낼 수 있는 새로운 소통 모델의 개발로 나아감으로써 해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원』을 바라보자면, 『여원』에 수록된 번역문학은 원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역사적 가능성을 찾아 해방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의 개발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여원』은 번역을 통해 기존의 사회질서와 의미질서에 현대적인 외피를 입혀 더욱 세련되게 공고히 함으로써 잔여태로 존재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원』 발간 초기에는 개체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삶에 주목하는 듯 했으나 점차 회를 거듭할수록, 미혼 또는 비혼 여성과 결혼한 여성을 구분 지으면서, 특히 결혼한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라는 상징적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더 많이 발산하고 있다. 이로써 여성은 스스로 아름답게 살고 다듬거나 쾌락을 향유하는 존재로서보다 남성이나 가정, 육아를 위해서 지원되고 마모되어야 하는 기능적인 존재로 이해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여원』이 발간되던 당대 한국 사회가, 이전시대보다는 덜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삶이 여전히 탈신체화되고 상징화되는 길을 선택했을 때 보다 더 긍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원』의 이러한 보수성은 역으로 ‘현명한 아내’, ‘희생의 어머니’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에 길들여진 대다수의 많은 당대의 한국 여성들에게 여지껏 자신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었던 전근대적인 심리적 보호막을 여전히 지켜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줌으로써 외상적 박탈 없이 낮은 이국성과 편안히 조우할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도 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번역 소설, 번역 수기, 번역 위인전기, 번역 동화의 게재 상황을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원』 소재 번역 목록

년월	호수	제목	원작자	번역자
1955.10	창간호	명작 그림 이야기	루이 에몽	이봉구
1955.12	3호	서러운 길음	(프) 포올 베르레에느	박태진
1956.1	1호	두 여성과 괴테의 운명	앙드레 모로아	이 한
1956.1	1호	형님	노라 버크	이진섭
1956.2	2호	자랑스러운 마음	퍼얼빅	박인환 (초역)
1956.4	3호	중국고전 부생육기(浮生六記) 1회	淸·沈復	오석천
1956.5	4호	중국고전 부생육기(浮生六記) 2회	청·심복	오석천
1956.7	6호	중국고전 부생육기(浮生六記) 3회	청·심복	오석천
1956.8	7호	중국고전 부생육기(浮生六記) 4회	청·심복	오석천
1956.11	11호	중국고전 부생육기(浮生六記) 6회	청·심복	오석천
1956.12	12호	중국고전 부생육기(浮生六記) 7회	청·심복	오석천
1957.7	7호	나는 코리안의 아내 2회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양태준
1957.8	8호	나는 코리안의 아내 3회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양태준
1957.8	8호	다시 만날 때	어원 쇼	독규남
1957.9	9호	나는 코리안의 아내 4회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양태준
1957.11	11호	나는 코리안의 아내 6회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양태준

1957.12	12호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사강	
1957.12	12호	한 달 후에 일 년 후에	F.싸강	홍순민
1957.12	12호	나는 코리안의 아내 7회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양태준
1958.1	1호	나는 코리안의 아내 8회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양태준
1958.2	2호	나폴레옹의 첫사랑	안누마리 세린코	심연섭
1958.3	3호	나는 코리안의 아내 完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양태준
1958.9	9호	붉은 복수	마이크 부켈	이영호
1958.9	9호	리디아의 무덤	하-바아트 해리스	박태민
1958.11	11호	서엽	어스킨 콜드웰	김한영
1958.12	12호	수줍은 『에리노어』1회	자넷트 이튼	편집부
1958.12	12호	감상의 사나이	A. 슈넛츠리	장남준
1959.1	1호	수줍은 『에리노어』3회	자넷트 이튼	편집부
1959.2	2호	유전	윌리엄 싸로얀	김한영
1959.5	5호	수줍은 『에리노어』6회	자넷트 이튼	편집부
1959.7	7호	수줍은 『에리노어』7회	자넷트 이튼	편집부
1959.7	7호	파티는 끝났건만	그레이엄 그린	이규태
1959.8	8호	수줍은 『에리노어』8회	자넷트 이튼	편집부
1959.8	8호	자라지 않는 아이	펠S·빅	이세열
1959.9	9호	자라지 않는 아이	펠S·빅	이세열
1959.9	9호	오이겐 지이겔	헤르만 헤세	박환덕
1959.9	9호	리브스토리	잔 스탠포드	오기방
1960.3	3호	언니	사빙형	권희철
1960.6	6호	속이 빈 북	톨스토이	
1960.10	10호	걸리버 여행기	스위프트	
1960.11	11호	걸리버 여행기	스위프트	
1960.11	11호	다이스	아나톨 프랑스	
1960.12	12호	마의 늪	줄류상드	
1960.12	12호	크리스마스캐롤	찰스디킨즈	
1961.4	4호	동키호테(상)	세르반테스	최영림
1961.7	7호	장미꽃 꼬마사람	안델센	최영림
1961.11	11호	무더운 여름밤의 일곱 가지 이야기	솔로 구우브	최영림
1961.12	12호	영웅	필리스 로버어츠	안동림
1962.6	6호	어떤 한국의 여병사	사빙형	권희철
1963.2	2호	큰 파도	펠S·빅	장왕록
1963.8	8호	옥이 되어 부서지리	반인목	권희철
1963.8	8호	이 여름 다 가고	세도우찌 하루미	정인영
1963.8	8호	나무·바위·구름	카이슨 백컬러즈	안동림
1964.9	9호	화채	기군	권희철
1964.11	11호	구슬 뺨	오수란	권희철
1964.12	12호	일기책	임해음	권희철
1968.1	1호	기린과 목도리	오린순	유경환

1968.1	1호	대통령 각하	미겔 안헬 아스투리아스	안동립
1968.2	2호	염소의 소동	앤랩프	유경환
1968.3	3호	『사비느』들	마르셀 에메	안동립
1968.5	5호	고양이사탄	글로우리어 빅스	김태읍
1968.11	11호	인조인간	스잔 손타그	김세영
1969.1	1호	난쟁이	마르셀 에메	민희식
1969.3	3호	빨간고양이	루이제린자	염무웅
1969.3	3호	마지막 한 마디 말이라도	에레나 보노	임명방
1969.7	7호	피아노 이야기	까르멘 라훼렛	장선영
1969.8	8호	미스 수제트와 나	일스 로사	조갑동
1969.8	8호	선로간수	찰스 디킨즈	
1969.8	8호	십삼층	윌리엄 텔	
1969.8	8호	불경기	글로우리 어빅스	
1969.8	8호	고양이가 싫어	로버트 세크리	김정화
1969.9	9호	가뭄	라셀데 게이로스	김창수
1969.10	10호	나무	마리아 루이사 봄발 (칠레)	조용국
1969.11	11호	가득한 마음씨	메아리 러빈	유영
1969.11	11호	딸의 환영		박재삼

6)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여원』, 1955년 10월호~1956년 5월호, 학원사.

『여원』, 1956년 6월호~1970년 4월호, 여원사.

『동아일보』, 1962년 10월 31일.

2. 논문 및 단행본

김복순, 「전후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

6) 빈칸은 원작자나 번역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도표는 필자가 확인한 번역 작품만 정리한 것이다. 잡지 『여원』 중 일부는 도서관에 정리된 목차만으로 번역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글도 있었으나 정작 본문이 유실되거나 파손되어 확인이 어려웠다.

여성문학학회, 2007, 7~60면.

- 김양선, 『전후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여원』,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61~92면.
-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여원』 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 김정숙, 『수기에 나타난 식민적 징후와 50년대 동일성 담론-『나는 코리안의 아내』와 『여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6권, 어문연구학회, 2008, 391~415면.
- 김종갑, 『역오디푸스 콤플렉스: 어머니의 두 개의 몸』, 『비평과 이론』 제15권 1호, 통권 제26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0, 5~29면.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 연구』 18집, 대중서사학회, 2007, 387~416면.
-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0, 345~375면.
- 박선주, 『(부)적절한 만남—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안과밖』 32집, 영미문학연구회, 2012, 289~317면.
- 박진영, 『편집자의 탄생과 세계 문학이라는 상상력』, 육당연구학회 · 한국비교문학회, 『함께 나란한, 공통적인, 공동체: 한국비교문학 연구의 길들—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육당 최남선의 물음을 둘러싸고』, 2012년 하반기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가의 과제 외』, 『발터 벤야민 선집』 제6권, 도서출판 길, 2008.
- 서연주,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담론 형성 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93~130면.
- 송인화, 『1960년대 연애소설 연구-『여원』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여원』 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국어교육연구』, 17집,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2006, 2006, 333~380면.

- 윤조원, 『번역자의 책무-발터 벤야민과 문화번역』, 『영어영문학』, 한국영어영문학회, 제57권 2호, 2011, 217~235면.
- 이덕화, 『『여원』에 발표된 [여류현상문예] 당선작품과 기성 여성작가 작품의 비교연구』, 『현대소설연구』 3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259~276면.
- 이명호, 『문화번역의 정치성: 이국성의 행방과 이웃되기』, 『비평과 이론』 제15권 1호, 통권 제26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0, 233~250면.
- 이문정, 『가정에서의 책 읽어주기 및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 인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2008, 1~19면.
- 이상화,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 담론 연구』, 『『여원』 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 이선옥, 『『여류현상문예』와 주부 담론의 균형』, 『『여원』 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 임은희, 『1950~6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31~160면.
-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사회과학연구』 15집 1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142~180면.
- 장미영, 『여성 자기서사의 서사적 특성 연구』,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61~194면.
- 장미영, 『1950~60년대 여성지의 서사만화 연구』, 『『여원』 연구-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 조 형, 『여성주의 시티즌십의 모색』,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Abstract

Translation Literature and Gender Discourse in 『YeoWon』

Jang, Mi-yeong

This Study aims to review, from a point of gender, the mechanics of communication in which 'translation' sutured the differences and was circulated through and adopted by the public, through the translation literature carried in the monthly magazine 'YeoWon'.

The translation literature carried in 'YeoWon' can be classified into novels, memoirs, biographies of great person, fairy tales mostly from Western countries such as USA, UK, France, Germany, Denmark, Italy, Spain, Portugal, Russia, South America such as Guatemala, Brazil, Chile and Asia such as China, Japan etc. This translation literature was diverse from 17th century Ching Dynasty stories to modern literature of 1950th, 1960th and 1970th. It could be understood that such a various translation literature in 'YeoWon' has made active transfer, variation and mutation in a wide range of space and time.

Even though the readers of 'YeoWon' were limited to women, 30,000 copies were sold monthly and became very popular in 1960th, recording the second rank among all magazines published in Korea. 'YeoWon''s popularity had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increase of the desire for the book purchase due to the 'Reading Week Event' made by the libraries from 1954 and the governmental movement of reading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 Education and the Library Association from 1957. Thanks to such a reading movement, 'YeoWon' could be regarded as a 'good book' requiring the higher academic condition in spite of its character of commercial and public magazine. 'Yeowon' was treated as the cultural book and a kind of required reading book for higher level women.

Years of 1950s to 1970s when 'YeoWon' was published were the time during which discussions occurred on woman's position and role under the concept of 'equality'. But most translated novels showed some features such as 'sacrifice' or 'endurance' in order for women to be treated as the same as the men. It means that the translated novels were not closely linked with the real world. What was pursued by 'YeoWon' was not individual happiness under the gender culture but women's roles under the totality for the construction of new Korea. Years 1950s~1970s were the era of re-construction after the Korean war.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on triggered the desire for the new nation followed by the desire of various information towards the world. While people's traditional culture and the sense of value were no longer treated as a 'role model' or 'direction of life', 'translation' done by 'YeoWon' caused the expectation of change from tradition to modernity, from aboriginality to foreignism.

As one knows well, translation means an activity of creating the new meaning along the 'context' after understanding the cultural meaning inside the foreigner's language, behavior and sense of value etc. While translation is an act of translating the original into another language, the object of translation is not the language but the potential inside the original work. Accordingly, the problem of

translated version's heterogeneity and difference can be solved by the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model capable of overcoming this problem and leading the mutual communication and exchange.

Looking at 'YeoWon' in this regard, one recognizes that the translation literature carried in this magazine could not make the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model capable of groping the liberation by finding the potential inside the original version and rather played a role to leave women inside the remain by coating the existing social order and meaning order with modernity and concreting them. Specially, the translation literature in 'YeoWon' promoted to give up womanhood and to go to the symbolic meaning of wife and mother immediately after the marriage. Therefore, woman's body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thing to pretty up or to look for pleasure, but the functional thing to use for house work and child care. In some way, the conservativeness of 'YeoWon' became a useful guidepost to meet the strange heterogeneity without a external wound by giving women the sense of stability keeping the psychological shelter which had protected them so far.

Key words: 『YeoWon』, translation, dephysicalization, symbolic meaning, women intelligence, cosmopolitanism, psychological shelter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